



“연중 제 27 주일”

<http://www.sjkoreancatholic.org/>

[루카 17.5-10]

2010.10.3.

금주의 강론

(안소근 수녀 (강론에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 이라는 주님의 응답은, 마치 믿음이 너무 작다고 책하시는 듯 보입니다. 말 한마디로 나무를 바다로 옮겨지게 할 수 없다면, 제자들이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긍합니다. 예, 주님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습니다. 이것이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임을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1코린 13, 12) 볼 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 (히브 11, 1) 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저희의 믿음은 한없이 나약하기만 하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신 분이 바로 당신이시기에, “우리의 뒤편이를 아시고 우리가 티끌이심을 기억” (시편 103, 14) 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 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

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생기를 돌게 하고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이를 슬기롭게 하네. ... 당신의 종도 이에 주의를 기울이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9, 8. 12) 여기서 ‘상급’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유익’ 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주님께 ‘분부를 받은 대로’ 사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또 세상의 눈에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가치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것이 ...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너무 현세적인 사고방식처럼 보입니까?

성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자신의 이익 외에는 추구할 것이 없는 삶이 얼마나 가련한 삶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본당의 날 (10/3)에 주교님께서 방문하시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매님들은 한복, 형제님들은 Suit(with tie)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진 데레사 자매님 부부는 3 주간의 여정으로 9/10/10에 고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성가대 신성원(루치아노)형제의 형님(제네비오)께서 간암으로 9/22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급히 떠나셨습니다.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연령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호삼 프란치스코님과 세실리아님 4박 5일의 여정으로 Hawaii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즐거운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 집 축복(10/1)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중국에서 근무하시는 부군 임 요셉 형제님은 화요일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시길 기도합니다.
- 성가대 야유회 (9/26)를 위해 준비해 주신 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초대받아 오신 해설달과 아침 성가단원들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 Mitty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Fr. Jim (원 신부님) 지난 수요일 밤 12시에 선종하셨습니다. 한국사람 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던 신부님의 영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때에 5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6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7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8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1분 명상

“오늘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에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
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남이 보기 부러워 할 정도의 여유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행복에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에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만족을 모를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사는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

- 좋은생각 中에서 -



■ 성모 신심

성모 신심(信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공경과 그 표현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합당하고 올바른 신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신앙 생활을 더욱 알차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바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모 공경은 근본적으로 신(神)인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일체인 하느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 묵주기도 성월의 유래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기도로 승리를 거둔 레판토 해전의 날(10월 7일)을 기념하여 교황 비오 5세가 이 날을 묵주기도의 기념일로 정하였다. 그후 1883년 발표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슈프레미 아포틀라투스』(Supremi Apostolatus)에 의해 10월이 묵주기도 성월로 설정되었다.